

# 투쟁가 대신 힙합...5·18 '젊음과 눈 맞추다'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41주년 행사 세대간 연결의 장으로

전자음악·미디어아트 있는 전야제...역사 기행 '랜선 오월길'  
청년 제작 소통 프로젝트·SNS 홍보... '미안마 운동'과 연계도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전야제에서는 40년 만에 투쟁가가 아닌 힙합과 전자음악(EDM)이 울려 퍼진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전야제는 '5·18을 겪은 세대'와 '5·18을 기록으로 만난 세대'를 연결하는 장으로 펼쳐지며, 특히 젊은 세대의 눈높이와 기호에 맞춰 모든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던 전야제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준비된 3가지 안중에 하나로 반드시 열린다.

1일 오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가진 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념행사 일정과 방침을 발표했다.

5·18행사위는 '오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라는 기념행사 슬로건을 공개하면서, 대폭 젊어진 5·18 기념행사의 기조와 방향을 설명했다.

5·18행사위는 올해 기념행사는 50주년을 향한 첫 걸음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젊은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5·18행사위 집행부와 기획단에도 20~30대의 비율을 높였다.

이를 위해 특별기획 사업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5·18민주화 운동현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랜선 오월길' 행사를 진행했다.

또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행사로 5·18세대 소통 프로젝트인 '우리 시대의 오월이 온다'도 준비 중이다.

베이비붐 세대, 엑스(X)세대, 밀레니얼 세대, 제트(Z)세대, 알파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민 50

~100명을 만나 5·18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 내용은 출판물로 만들어져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각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젊은 세대로 구성된 온라인 홍보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청년의 시각으로 만든 5·18콘텐츠를 통해 5·18이 지닌 무거운 분위기를 해소하고 뽀뽀·외곡도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획된 것이다.

젊어진 것은 5·18 기념행사의 핵심인 '5·18전야제'도 마찬가지다. 풍물패, 노래패 위주의 공연에서 탈피해 전자음악(EDM), 힙합, 디지털·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야제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민주평화대행진과 시민난장은 많은 인원인 한 장소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치르지 않기로 했다.

전야제 장소도 코로나 방역을 고려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으로 한정된다.

'미안마 광주연대'와 함께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행사도 진행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 손가락 그림'을 게시해 민주화 투쟁을 하는 미안마 국민을 지지하는 '광주의 오월이 제안합니다' 캠페인과 미안마 응원 현수막 달기 등의 행사가 준비 중이다.

원순석 상임행사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본적인 계획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준비준 계획으로 감염 확산 정도와 방역지침에 따라 계획은 탄력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면서 "지난해는 갑작스레 코로나19가 덮치며 행사가 상당히 제한됐지만 올해는 전야제를 반드시 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안마 민주회복 연대” 전남대학교 교수회 등 학내외 단체들이 1일 오전 교내 5·18광장에서 '미안마 군정종식과 민주회복을 위한 전남대 행동연대'를 결성하고, 앞으로 미안마 국민에 대한 연대와 지지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역 맞춤형 학교생태·환경교육 청신호

교육당국, 기후 위기 대응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 2분기 구체화될 듯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학교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교육청이 기후환경협력력을 신선했고 친환경생태학교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기후·환경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육기본법 개정' 대정부 제안에 교육부가 수용 의견을 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와 환경 재난에 대응해 모든 학생과 교원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지와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지구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개정 과정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기후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후환경교육위원회'도 시도교육감협의회 내에 만들어졌다.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기후 위

기와 환경재난으로 인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접 나선 것이다.

2019년에는 국내 청소년들이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 위기 결석 시위'를 펼쳤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가 기후 위기에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당면제 4169건

시, 특정감사 결과 발표...전·현직 공무원 등 63명 '부정 청탁'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일 지난 1월4일부터 20일 간 실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구청이 부과 면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4169건(3590대 1억 2700만여 원)의 과태료 부당 미부과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 63명의 부정 청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비롯한 미부과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통보 및 기관경고, 과태료 면제 청탁 관련자 59명과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4명 등 총 63명에 대해 징계요구,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관련자 16명에 대해 수사 요청 등에 나서도록 통보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당 면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감사결과와 1개월간 재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장애 학생 문화 향유 '상상누림터' 개소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조성

광주지역 장애 학생들의 문화 향유를 돕기 위해 조성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상상누림터'가 개소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상상누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광산구 신창동 소재) 내에 95㎡ 규모로 조성됐다.

시물레이터, 인터랙티브 디지털 스케치, 벽면

실감형 캔버스, 바닥형 실감형 캔버스, 모션 코딩, 모션 샌드, 스포츠 체험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총 9종 47편의 교육·문화 콘텐츠로 구성됐다.

상상누림터는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된다.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우주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별에서 도전과 탐험을 즐길 수도 있다.

발달장애 학생을 고려한 난이도와 속도 조절,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자막 제공,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사운드 효과 제공,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모션 진동판 설계 등 장애 학생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다.

장항국 광주시교육감은 "상상누림터가 장애 학생에게 시·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함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